



지난 20일 임진강변의 비경을 볼 수 있는 '2017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가 평화누리길 8코스 파주 반구정길에서 열렸다.

사진=경기도청

##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 1천200명 발길

### 8코스 반구정길 9km 순환코스 45년만에 임진강변탐방로 걸어

임진강변의 비경을 볼 수 있는 2017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가 지난 20일 평화누리길 8코스 파주 반구정길에서 1천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걷기행사는 경기도 최북단 도보여행길인 평화누리길을 걸으며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자연환경을 알리고자 경기도와 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했다.

걷기행사는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마중을 주제로 울곡 습지공원을 출발해 장산 전망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9km 순환 코스에서 진행됐다.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 이평자 파주시의회 의장,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시민 등 1천200명은 지난해 45년 만에 개방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걸으면서 찰책 넘어 임진강의 비경을 즐기고, 장산 전망대에 올라 북한의 송악산까지 바라봤다.

코스 중간중간에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카드게임, 평화누리길 페이스 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행됐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지난 45년간 민간인의 발길이 제한됐던 곳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그동안 숨겨졌던 비경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는 다음달 17일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철원군 노동당사까지 12km 코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윤성기자



### 파주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1200명 발길 봄 자연 만끽

경기도는 건강한 걷기문화 확산과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17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가 지난 20일 파주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DMZ 일원 4개 시·군을 잇는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에서 2010년부터 열려 왔다.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울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울곡습지공원으로 들어오는 9km의 순환형 코스로 1천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완연한 봄을 느끼며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코스 중간 중간 미니게임을 배치, 참가자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통해 카드를 수집하는 '모두 찾아라! 평화누리길 카드 게임'은 물론 '평화누리길 페이스 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다음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6월 17일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철원군 노동당사까지 도와 강원도의 평화누리길 연결을 기념하는 12km 코스 걷기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부근·신기호 기자 bgmin@  
4.8 X 18.9 cm



**'평화누리길 걷기' 1200명 같은 소망** 지난 20일 파주 평화누리길에서 열린 '2017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in 파주'가 1천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 평화누리길 8코스 반구정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을 주제로 울곡습지공원을 출발, 생태탐방로와 장산전망대, 화석정을 지나 출발지로 돌아오는 9km 순환코스로 진행됐다. 45년 만인 지난해 처음 개방된 탐방로에서는 임진강변 아니라 멀리 북한의 송악산까지 바라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행사에는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 이평자 파주시의회 의장,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홍보대사인 텔런트 이광기씨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코스를 걸었다.

의정부/김규식·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경기도 제공

15.1 X 12.8 cm